

도지사 동정

광주 매일신문

2013년 01월 25일 (금)
14면 스포츠

전남도체육회 남악새 보금자리 입주



24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열린 전라남도체육회관 준공식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재무 도의장, 이탁우 생활체육회장,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참석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의 안내로 전라남도 체육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도 체육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천291㎡ 규모로 전남도체육회 사무처, 장애인체육회 등 34개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과 스포츠 과학센터, 전남스포츠 전시관, 배드민턴·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섰다.

/김기식기자 pj21@kjdaily.com

15.3 X 13.4 cm

南道日報

2013년 01월 25일 (금)
01면 종합



전남도체육회관 준공식

전남도는 24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에서 전라남도체육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재무 전남도의회장, 이탁우 전라남도생활체육회장, 전승현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회관내 전라남도스포츠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 기사 12면>

무안/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20.8 X 12.2 cm



전남체육회관 준공 전남체육이 본격적인 남약시대를 열었다. 전남체육회관 준공식이 24일 오전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박준영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들이 전남 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을 돌아보고 있다.

15.1 X 10.8 cm



24일 무안군 삼향읍에서 열린 전남도체육회관 준공식에서 박준영 지사와 김재무 도의장 등 참석자들이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안내로 전남도 체육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최동환 기자

‘전남 체육 요람’ 전남체육회관 준공

어제 무안서... 지상 5층 규모 다목적체육관 등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24일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남도체육회관 다목적강당에서 체육회관 준공식을 열었다.

전남도체육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291㎡ 규모로 전남도체육회 사무처, 장애인체육회 등 34개 개행 경기단체 사무실과 스포츠 과학센터, 전남스포츠 전시관, 배드민턴·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

육관 등이 들어섰다.

준공식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이탁우 전남도 생활체육회장, 체육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남 체육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체육회관이 준공돼 체육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고 무엇보다도 체육인의

사무실과 체력 측정시설이 없어 더 부살이를 해야 했던 서러움도 사라졌다”며 “특히 다목적강당과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좋은 여건을 갖춘 체육회관의 준공을 계기로 체육관계자와 선수들이 힘을 합쳐 전남체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dhcho@jinilbo.com

15.3 X 16.7 cm



전남도체육회는 24일 오전 11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 신도시에서 박준영 도지사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전남도체육회 '남악시대'

체육회관 준공식...박 지사 등 300여명 참석

전남도체육회는 24일 오전 11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에서 체육회관 준공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준공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체육회장)를 비롯해 김재무 도의회 의장, 김원찬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철주 무안군수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형철 스포츠산업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 보고로 시작된 준공식은 체육회관 준공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의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와 박 지사의 기념사, 김 의장의 축사 순

으로 진행됐다.

박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남 체육인의 오랜 염원이던 체육회관이 준공됐다"며 "앞으로 체육회관의 다목적강당과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체육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291㎡ 규모로 복권기금 등 모두 135억 원이 투입됐다.

지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는 등 최첨단 건물로 지어졌다.

체육회관에는 전남도 체육회 사무처를 비롯해 장애인체육회, 34개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 스포츠 과학센터, 전남스포츠 전시관, 배드민턴과 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섰다.

전남도 체육회는 1983년부터 광주시 구동 회관을 활용하다가 2007년 12월 목포로 옮겼고 2009년 3월 체육회관 착공에 들어갔다.

전남도 체육회는 배드민턴과 농구 등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과학센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선수 관리 등 전남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계기로 각종 대회 개최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고광민 기자

15 1 Y 10 1 cm

光州日報

2013년 01월 25일 (금)
15면 스포츠

전남도체육회 남악시대...체육회관 준공식

자료 전시 스포츠 역사 한눈에

전남도체육회의 남악 신도시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남도체육회는 24일 전남도청 인근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에서 전남도 체육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입된 도 체육회관은 연면적 5630㎡(지하 1·지상 5층) 규모로 체육회 사무실을 비롯해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 다목적 강당, 스포츠 과학센터 등을 갖췄다.

특히 1층 전남 체육전시관에는 역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에서 전남출신 선수들이 딴 각종 메달과 전남 스포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사진〉

전남도체육회 전승현 사무처장은 "전남



체육회관 준공에 따라 전남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7.6 X 10.2 cm

남악신도시 전남도체육회관 준공



전남도체육회는 24일 무안군 삼향읍 오룡리에서 신축 체육회관 준공식을 갖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재무 도의회 의장,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서정복 전남축구협회 회장 등이 도체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임정욱기자

“전남체육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

스포츠과학센터·전시관 등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체육인의 희망을 담은 전남도체육회관이 준공됐다.

전남도체육회는 24일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번지에 위치한 전남도체육회관으로 이전, 남악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11시 체육회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재무 도의회 의장, 김원찬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철주 무안군수,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체육계 원로, 선수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준공식은 정형철 도 스포츠산업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전남체육회관 준공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박준영 도지사의 기념사, 김재무 도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형철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체육회관은 2009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현 부지를 매입, 2011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1년 10월에 착공해 2012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식을 갖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박준영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남 체육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체육회관의 준공으로 체육 발전의 기틀이 마련돼 기쁘다. 도체육회를 비롯한 가맹체육단체가 함께 입주해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전남도체육회관의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등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

또 체육회관에는 전남 대표선수와

도민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과학센터가 마련됐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에 일반체육회 사무실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목적강당, 회의실,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체력 단련실 등이 들어섰다.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오랜 숙원이던 체육회관이 준공돼 도체육회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체육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정욱기자

20.7 X 22.6 cm

전남체육회관 준공...새도약 기틀 마련

일반·장애인체육회 사무실·스포츠과학센터 갖춰

전남도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전남도체육회관이 마침내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도체육회는 24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남도체육회관내 1층 다목적강당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체육회장)와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김원찬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철주 무안군수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정형철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전남도체육회관 준공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기념사,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체육회관 정문에서 테이프커팅식과 내빈들의 시설 시찰 순으로 준공식 공식행사가 열렸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남 체육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체육회관이 준공돼 체육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무엇보다도 체육인의 사무실과 체력 측정 시설이 없어 더부살이를 해야 했던 서러움도 사라졌다”며 “다목적강당과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도체육회를 비롯해 가맹체육단체가 함께 있게 되어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산업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박지사는 “동계훈련지로 남도가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이 노력을 해야한다. 진도와 완도 등 섬 지역도 앞으로 전남체육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체육인프라 시설에 노력을 가해 산업으로써



24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전남도체육회관 준공식이 열려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무안/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발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은 “체육인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다”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해 힘쓰는 체육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준공식을 계기로 스포츠 신화를 새롭게 써나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5천630㎡이며 일반체육회 사무실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목적강당, 스

포츠과학센터, 회의실,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체력 단련실 등이 들어섰다.

특히 전남도체육회관의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등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

또한 전남체육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및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의 기초가 될 스포츠과학센터 운영도 타 시·도체육회와는 차별화된 시설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